



박노황 경영진이 망친 노동조건 개선에 박차 실무교섭 7차례...임금차별 해소·편집권독립·불이익 금지 요구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이하 노조)는 박노황 경영진 퇴출을 위한 투쟁에 집중하는 가운데 2017년 임금협약 체결 및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조합원과 사원들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결정하는 일을 무한정 미뤄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경영진이 만든 온갖 부당한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차례 임협, 5차례 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당장 나가야 할 경영진이 상견례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회사 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3년동안 회사를 망가뜨려온 경영진은 이렇게 끝까지 회사와 사원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다.

경영진 아집에 상견례 파행...실무교섭 7회 진행

노조가 임협 개시를 요구한 것은 8월 초순이었다. 경영진은 언론노조와 상견례는 절대로 할 수 없다며 버티고 미루다가 자신들이 제시한 날짜인 9월 1일 경영진 전원이 불참함으로써 상견례를 파행시켰다. 노조는 이에 항의하고 2차 상견례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파행으로 끝났다. 노사간 상견례는 협상을 처음 시작한 지 2개월이 훨씬 지난 11월 7일에서야 단협 개시와 함께 이뤄졌다.

그럼에도 노조는 조합원 설문, 회사에 자료 요구 등 준비과정을 거쳐 임협 실무교섭에 성실하게 임했다.

조합원 554명 가운데 63%인 349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률 기대치는 총액 기준으로 5~6.5%가 가장 많았고, 노동 강도가 강해졌다는 데 대부분 조합원이 공감했다. 노조는 조합원 요구와 경제 현실을 바탕으로 기본급 8% 인상을 비롯한 1차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에 회사는 요구가 지나치다며 난색만 표할 뿐, 아무런 사측 안을 내놓지 않다가 11월 말 4차 실무교섭에 이르러서야 1.5%의 기본급 인상안만 달랑 들고 나와 노조측 교섭위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이달 초순 5차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5% 인상으로 수정 제안했고 회사는 6차 교섭에서 1.8% 인상안을 들고나와 격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사원간 임금격차 해소에 총력...입장차 커

노조는 이번 임협에서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에 따라 연봉사원과 호봉사원의 임금 격차를 완벽하게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이에 대해 의지가 있다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가 제시한 연호봉 임금 비율 88%는 100%라는 노조 요구와는 큰 차이가 난다.

또한 노조는 박노황 경영진 아래에서 뚜렷한 근

거와 투명한 절차 없이 조합원 탄압용으로 자행된 승호 누락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승호를 명확한 기준 없이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임협과 단협에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이에 대해 '승호는 인사권'이므로 협상할 여지가 없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신입사원 선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연봉제 폐지와 경영진이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에 동조하려 노조 반대에도 시행한 간부사원 연봉제의 호봉제 복귀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조합의 요구에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편집총국장제 부활 촉구...사측 미온적 태도

단협의 핵심은 박노황 경영진이 무너뜨린 편집권 독립과 공정정보 체제를 재건하는 것이다.

2012년 103일의 파업으로 얻어낸 편집총국장제를 무력화시킨 박노황 경영진은 지난 3년 동안 편집국장도 제대로 임명하지 못한 채 편집국장 직무대행 체제로 회사를 운영했다.

조합은 편집총국장을 편집인으로 하는 편집총국장제를 부활할 것과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먼저 임명해놓고 임명동의 투표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을 방

2면에 계속



동장군 물렸거라~
박노황도 물렸거라~

텐트농성 한달을 맞아 지난달 30일 본사 앞 광장에서 열린 박노황 경영진 퇴진 촉구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과 언론노조 지·본부 관계자들이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영하권 날씨에도 집회는 유쾌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조합원들은 손난로 쥘 주먹을 높이 들어 구호를 외치는 등 추위를 내쫓는 투쟁 열기를 드러냈으며 이주영 위원장과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은 그동안 쌓인 투쟁 경험을 발판으로 '업그레이드'된 발언으로 함성과 웃음을 끌어냈다.

박노황아래서 흐트러진 북한보도 체계

자타가 인정하는 북한보도의 독보적인 경쟁력 훼손

연합뉴스의 북한보도는 국내 안팎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자타가 인정한다. 2000년 정상회담 당시 민족뉴스취재본부가 관련보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이후 김정은 후계자 지명 등 굵직한 특종 등으로 북한보도에서 연합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렇게 공고하던 북한보도 체계는 2015년 3월 박노황 사장 취임 이래 시나브로 허물어졌다.

비상식적인 인력운용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운용에서 발생했다. 2015년 10월 회사의 은밀한 압력에 못 견뎌 북한부 최선영 부국장이 사표를 내야 했다. 이에 앞서 2015년 4월 장용훈 당시 차장은 북한부에서 동북아센터로 발령이 났다. 두 사람은 거의 20여 년 동안 북한 기사만 써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북한부에서 근무했던 최 기사는 퇴사 당시를 “오보성 기사를 쏟아냈던” 시기라고 지난 9월 29일자 노보에서 밝혔다.

특히 최 기사는 자신이 낸 사표가 2시간 만에 수리됐다고 밝혔다. 그가 낸 사표를 2시간 만에 수리한 이유를 묻자 조복래 콘텐츠융합총괄상무는 지난 12일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라고 되물으며 최 기자와 대화도 많이 하는 사이였고 안부도 자주 물었다고 질문과 동떨어진 대답을 했다. 그는 초고속으로 사표를 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조 상무는 편집국 기자들의 인사를 총괄한다.

경영진은 2016년 3월 탈북자 출신의 광명일씨를 채용했다. 지난 9월 29일자 노보에서 밝힌 대로 광씨를 채용하면서 조선중앙통신 원문을 주며 기사화하고 간단한 논술을 쓰라고 한 게 전부였다. 지난 8월 광씨를 퇴사시킨 이유를 묻자, 조 상무는 밑에서 업무능력이 안 돼 회사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일 잘하는 기사를 내쫓고 그 자리에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기자로 뽑았음을 자인한 셈이다. 당시 통일외교부장을 맡았던 정재용 부국장은 19일 광씨를 전문기자로 뽑았던 것이냐는 질문에 “경영진이 뽑은 사안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업무와 상관없는 전보

이와 함께 박노황 경영진이 북한분야에서 주로 일했던 기자들을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배치한 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20년 넘게 기사만 썼던 남광식 차장, 강진욱 부국장, 정일용 부국장 세 명은 홈페이지 편집을 주 업무로 하는 콘텐츠 편집부 실무자로 발령을 냈다. 발령이유를 묻자 조 상무는 “공교롭게 어떻게 그렇게 됐죠? 세 분 다”라며 “자료를 토대로 결정하니깐.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것 아니겠어요?”라고 말했지만 설명이 될 만한 대답은 하지 못했다. 북한 기사를 썼던 사람들에게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조 상무는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닐거예요”라고 답했다.

조 상무는 또 외국어뉴스국 쪽은 일한 적도 없어 전혀 모르며 남 차장의 전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황두형 외국어뉴스국 에디터는 “위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 부국장은 콘텐츠편집부에서 시작해 서산 흥성주재, 안양주재기자로 2015년 4월부터 그해 10월까지 7개월 동안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지방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했다는 사실을 말하자 조 상무는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강 부국장의 비상식적인 전보에 대해 박 사장은 지난 10월 본인에게 직접 얘기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박 사장의 후안무치는 다른 곳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남북관계에서 연합이 역할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박 사장은 직원중에 기자회견의 남북기자교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장급 간부가 있다며 연합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국장급 간부는 정 부국장으로 콘텐츠편집부를 거쳐 현재는 DB부에서 연합백과를 제작하고 있다. 박 사장은 정 부국장을 본업과 다른 곳에 전보발령내고 필요할 때만 언급하는 뻔뻔함을 내보였다.

조직통합

경영진은 인력운용뿐만 아니라 북한보도 조직도 건드렸다. 2015년 10월 가을 정기인사에서 북한 내부 소

식을 주로 다뤄오던 북한부를 통일외교부와 합쳤다. 북한부와 통일외교부를 합친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합친 것이 맞았다는 의견과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로를 막아 버렸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북한부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외신이나 보수세력들이 악마화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북한부와 통일외교부의 통합에 대해 조 상무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서 “좀 전체적으로 대비를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한 일이라며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영문북한팀 해체

경영진은 이어 2015년 12월 세계 유일의 북한전문 영문잡지 <<Vantage Point>>를 폐간하고 이 잡지를 제작하던 영문북한팀을 해체했다. 폐간이유는 외부에서 받던 구독료가 끊기자 회사 예산으로는 잡지를 만들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경영진은 예산이 문제라면 종이잡지를 웹진으로 전환하자는 실무진의 의견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 팀을 폐지하면서 <North Korea weekly>라는 제목으로 송고하던 주간 영문북한뉴스 서비스도 중단했다.

영문 <<Vantage Point>>는 서방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 주도층들에게 깊이 있는 북한 기사를 공급할 수 있는 창구였다. 잡지 폐간 결정이전에 이 모든 사실은 보고서 형태로 경영진에게 보고됐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영문북한팀 해체는 더욱 아쉬운 점이다.

경영진이 답해야

경영진 가운데 한 명인 조복래 상무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영문잡지 폐간과 관련해서는 편집국 쪽은 알아도 영문 쪽은 전혀 모른다는, '콘텐츠융합'을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최선영 기자가 사표를 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영문북한팀을 해체하고 북한 보도분야에서 비정상적인 인력운용을 한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영진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1면에 이어

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자고 회사에 요구했다.

회사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현행 제작국장 임명협의제의 시행을 위해 투개표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더 논의하자고 고집하고 있다.

더불어 노조는 육아휴직자가 복직 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박노황 경영진이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남용할 여지를 만들어놓은 대기발령 제도와 관련해서도 조합원이 부당한 처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질적 방안을 만들어 단협으로 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 정상화 요구

매년 조합이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통상임금 정상화와 연장 야간 근로수당 합법화는 올해 임금협상에서도 쟁점이다.

회사는 통상임금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가자’면서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법

화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 통상임금은 주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현재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법정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액제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조합은 통상임금 정상화 요구를 유지하는 한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당초 요구했던 합법화에 필요한 막대한 회사 재원을 감안해 정액 인상안으로 수정해 제안한 상태다.

텐트농성 50일, 바로세우기 투쟁은 계속된다

박노황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11월 2일 시작된 텐트 농성이 오는 21일로 50일을 맞는다.

그동안 텐트 농성에 가까이 참여해 업무로 쌓인 피로를 풀어야 할 밤을 텐트에서 보낸 조합원, 휴일도 반납하고 텐트를 지킨 조합원은 80명(중복 제외)을 훌쩍 넘는다. 조합원들이 본업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하는 투쟁인 터라 불가피하게 생긴 텐트 당번표의 '구멍'을 메우는 일을 도맡은 이주영 위원장은 평일 낮 업무를 텐트에서 보는 것에 더해 10여 차례 넘게 밤 당번을 설 정도로 텐트와 한몸이

되어 지냈다.

50일간 텐트는 여러 변화를 맞이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노조전임자인 남광식 정책기획실장을 맞이한 일이다. 남 실장은 김지연 사무처장이 발휘하지 못한 '대청소' 신공을 펼쳐 텐트에 배어있던 불쾌한 냄새를 제거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변화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큰 변화도 있다. 출범부터 조합원들과 함께한 텐트일지에는 '박노황은 당장 퇴진하라! 공정정보도 쟁취 투쟁!'이란 문구가 박혀 있었지만, 이제는 '공정보도 파괴 인

사전형 박노황 경영진을 즉각 해임하라!'라는 문구가 박혀 있다.

변함없는 건 한 가지, 조합원들의 뜨거운 투쟁 열기와 연대의식이다. 이제 손때가 많이 묻은 투쟁일지 파일을 별 생각없이 시간이나 때워볼까 하고 열어봤다간 큰코다친다. 동료애에 뭉클, 연대의식에 울컥, 경영진은 대체 왜 안 나가는가 하는 짜증과 분노, 그 온갖 감정이 글씨 하나하나에 녹아 있다.

박노황 퇴출을 위한 투쟁은 경영진을 몰아낼 때까지 계속된다.

부디 회사가 건강해지기를 16일째, 이웅 조합원 박상현 조합원

2012년 뜨거웠던 여름 이후 5년 만에 다시 텐트. 사장 퇴진과 공정 정보도 쟁취, 건강한 사내문화 확립 등을 기치로 내건 텐트농성 16일째. 텐트는 생각보다 넓고 물자는 부족함이 없었다. 모기는 사라졌으나 첫눈과 함께 추위가 엄습했다. 부디 회사가 건강해져서 텐트에서의 하룻밤은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란다.

답지하는 인도지원 물자...연합뉴스는 공동체! 17일째 낮, 백나리 조합원 김효정 대의원

이정진 선배가 건네주신 빵과 커피, 이울 선배가 '아직 따뜻하다'며 주고 가신 주전부리, 장용훈 선배가 원격으로 보내주신 커피쿠폰, 모 부장급 선배의 플라넷 아이스크림, 모 에디터의 식후 케익, 이주영 위원장의 피자 하사, TV 김혜영 기자의 핫팩과 모과차... 정말이지 배가 꺼질 틈이 없다. 생각보다 날이 춥고 시간이 더디 가긴 했지만, 연합뉴스가 '공동체'구나 느끼게 됐다. 이 공동체에서 하루빨리 사장이 나가서 조합원들이 한겨울 추위에 떨며 텐트를 지키는 일은 없으면...

수습 첫날처럼 마음 복잡한 날, 텐트의 추억 17일째 밤, 한지훈 조직부장(필자) 김계연 대의원

불을 끄고 누우니 세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하나는 지난 겨울 템플스테이를 한 송광사다. 회사 로비인데 텐트 문을 닫으니 마치 회사일에서 벗어나 멀리 떠난 것처럼 편안하고 아늑했다. 둘째는 학창시절 난곡 달동네다. 사측이 텐트 철거를 시도할 수 있다고 선배가 겁을 주는 바람에 문득 난곡동에서 만난 용역강대들이 생각났다.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도 이따금 무리지어 지나는 발소리에 떨쩍 잠이 깬다. 마지막은 언젠가 지지 방문한 이주노동자 농성 텐트. 수습일째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숨쉬는 다국적의 냄새는 투쟁이고 뭐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우리 텐트에서도 노숙의 향기가 조금 나려고 해서 추운데도 자꾸 환기를 했다. 텐트가 어렵듯 옛 기억을 부르고 또 오늘이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지 마음도 복잡해서 잠을 뒤척였다. 어쩌면 수습 첫날처럼 까마득히 긴 밤을 보낸 기분이다. 하필 그때 일진이 김계연 선배였다.

서울이 영하 6도 찍은 날 농성의 향기에 깊은 고민을.. 19일째 낮, 이태수 정빛나 대의원

농성 텐트도 날이 쌓여감에 따라 농성의 향기가 짙게 배어 서대문서 수습 기자실을 떠오르게 한다. 서울이 -6도를 기록한 엄혹한 추위에 환기를 할 것인가 텐트 문을 닫고 냉기를 막을 것인가 고민을 했다. 노조에서 워낙 풍성한 간식을 구비해 준 덕에 가리지 않고 먹었더니 반나절 먹은 열량이 1천kcal를 훌쩍 넘길 듯하다.

김태균 조합원과 배성재 한국일보지부장이 기부한 연대의 글.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조금씩 잡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19일째 밤, 이주영 위원장

그동안 텐트를 지켜준 조합원들이 일지에 남긴 굳은 결의와 따뜻한 동료애를 보여 단결투쟁가 한 구절을 떠올려 본다. 3년간 박노황 사장과 경영진이 조금씩 잡아먹은 연합뉴스. 한꺼번에 되찾기 위해 힘을 모아주는 조합원들. 위원장으로서 난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나만 잘하면 된다. 매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동기 병개모임 된 텐트 당번 20일째, 류수현 김소연 대의원

대전과 수원서 동기 둘이 온다니 34기들이 모여 동기 1/2이나 모이는 뜻밖의 동기모임이 이뤄졌다. 치킨과 디저트를 시켜 먹었는데 식비가 많이 나와.. 이래도 되는지... 걱정이다. 텐트에 머물다 보니 이런 생활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느꼈다. 자는 동안 소음에 수 차례 깨고 등이 배겨 몸이 찌뿌듯했다. 사장은 후배들의 이런 노고를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털었습니다 털~털~

캠핑은 자연에서 하고 싶다 23일째, 한종찬 운동진 박동주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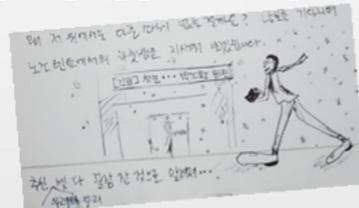
캠핑은 자연 속에서 하는 건데 사장 덕에 도심 속에서 캠핑을 즐긴다. 참 고맙지만 앞으로는 자연 속에서 하고 싶다. 이제 좀 나가자!

미완의 텐트 투쟁, 이번엔 결실을 21일째, 구정모 대의원 박의래 조합원

치킨 풀어놓고 텐트를 찾아온 조합원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시감이 들었다. 당시엔 따뜻한 여름 청계천변에 텐트를 쳐 운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추운날 건물 한켠에 자리 잡았다. 예전 파업 텐트 때 미완의 성공을 거뒀다면 이번엔 결실 보는 성공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랑하는 일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첫눈을 22일째, 권숙희 공보위원 김아람 김수진 조합원

수습기자실보다 100배쯤 아늑한 텐트에서 선배들이 사준 치킨과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꽃 피우니 몸은 추워도 마음은 따뜻하다. 축하라도 하듯 밖에는 진정한 첫눈이 펄펄 내린다. 박경준 조합원이 딸과 응원 방문했고 김지현 한종찬 박초롱 장용훈 백나리 김정은 김수현 권혜진 김준익 김경희 조합원이 둘러 담소를 나눴다. 함박눈 내리는 겨울인데 왜 저 위에선 소식이 없는 걸까? 낭보를 기다리며..



갈수록 고패이 되는 투쟁일지!

☞ 3면에 이어

워라벨을 보장하라!
24일째 낮, 김수연 공보위원
박보람 조합원

근무중인 선배가 들려 홍차를 사주셔서 당소를 나뉘고 사장은 언제쯤 나갈 예정이냐며 분노도 나왔다.

휴일임에도 평일 출근보다 이른 시간 텐트로 출근해야 하는 괴로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철거 시도 등은 없이 지나갈 것 같다.

내일은 또 일요일 근무다. 사장님,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 '워라벨'을 보장하세요!

투덜대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24일째 밤, 김연정 대의원
박초롱 공보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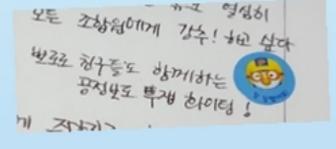
김연정 : 사실 투덜대는 마음도 약간 갖고 시작했는데 선후배들 일지를 보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의원이라고 징징대지 않아야겠다 싶네요. 좋아하는 후배 초롱이와 도란도란 텐트 당번 좋습니다.

박초롱 : 천둥 치고 비오고 추운 토요일, 소녀상 옆에서 대학생들이 집회를 하고 있기에 '재네 참 대단하다' 생각하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우리 텐트도, 소녀상 앞 지키는 대학생들 텐트도 얼른 자진 철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텐트 당번 강추합니다.
25일째 낮, 오수진 대의원
김경윤 조합원

오수진 : 김경윤과 함께하겠다고 2번이나 날짜를 미뤘다가 결국 일요일 아이를 데려오는 스케줄을 감행. 다행히 아이는 텐트가 싫지 않은지 텐트 안에 있는 글을 3개나 까먹고 포도주스도 1병 원샷한 후 만족스러운 얼굴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다. 날이 추위 야외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가 텐트 안팎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는 걸 보니 주말에 아이와 함께하는 텐트 당번을 모든 조합원에게 강추하고 싶다.

김경윤 : 업무 스트레스에 몰려있지만 그래도 짬을 내 노조 텐트 지킴이에 동참할 수 있어 다행. 한숨 푹 내쉬던 내 앞에서 동요 불러주던 오수진의 장녀와, 기운을 준 김지현에게 감사하다.



교대근무에 텐트당번까지
26일째, 이슬기 대의원
김용민 대의원

교대 근무라 많은 도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좁은 텐트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텐트에서 하루 잘 쉬다 갑니다~

빨강 vs 파랑, 투쟁을 살리는 짝기실력
28일째, 김주성 조합원

후배 서명곤의 머리가 백발이 되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텐트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더없이 조용한 밤입니다.

남자 침낭이 빨강인지 파랑인지 고민하다가 빨강을 택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투쟁!



여성용은 파랑
남성용은 빨강

박수 제가 쳐드릴게요
33일째, 김현태 김도훈 조합원

서태지와 아이들이 생각난다. 96년 그들의 은퇴는 꽤 큰 충격이었다. 당시에는 그렇게 그들을 좋아하진 않았다. 그냥 인기 절정일 때, 최고의 위치에서 떠나는 게 멋있어 보였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여기 누군가는 그 박수가 없어서 안 떠나는 건가?
 짹짹. 고생했어요. 어서 가세요.

랜턴지공이 전등지공으로
35일째, 김지현 대의원

5년 전처럼 책을 읽는다.

간첩 나오는 책이든 영화든 좋아하는데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를 강추한다. 아직까지 이런 책이 남아 있었구나 기쁨을 느낀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도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제목이 이 책을 잡기까지의 유일한 허들이다.

5년 전에 텐트만 있어서 헤드랜턴 쓰고 책을 보는 랜턴지공을 펼쳤는데 지금은 텐트 안에 전등을 비롯해 온갖 것이 다 있다.

세상은 그만큼 좋아진 걸까?

지쳤으나 지칠 수 없는 삶이란
37일째, 안홍석 공보위 총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친구는 기어이 왔다. 양념치킨 한 마리를 싸들고. 친구가 박근혜를 짝은 건 할머니의 유언이었기 때문이다. 친구가 미안해하니 내가 더 미안하다.

산과 바다를 좋아하는 친구는 지난해까지 공시족이었다. 우리는 시간만 맞으면 배낭을 메고 떠난다. 우리 캠핑 환경에 비하면 이곳은 호텔이다.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텐트 사진을 올리면서 묻는다. "이러면 박노황이 물러나냐?"

잘 모르겠다. 5년 전이라면 열변을 토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웃기만 했다. 앞으로 대충 웃음으로 때우는 경우가 내 인생에 더 많아지겠다.

나도 지쳤고, 여러분도(아마도) 지쳤고, 내 친구도 지쳤다. 친구는 올초 치킨집을 열었다.

이에 대해 안 총무는 '탱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추천

해본 사람만 아는 이 캠핑
36일째, 박영석 대의원

- 11시까지 술 좀 드신 어떤 분이 계속 떠드심
- 회사 로비에서도 자물 수 있게 해준 사장한테 감사
- 전기요만으로도 충분히 따뜻
- 귀마개 덕분인지 꿀잠
- 청소기 소리엔 못 당함
- 침낭 엄청 따뜻함
- 그래도 새벽엔 공기가 차가움

여기에 있는 것
39일째, 김태식 비대위원
고형규 비대위원

텐트 당번에 앞서 김태식 선배와 수송약국 옆 순대국 집에서 순대국을 먹으며 인터넷 뱅킹과 **** 자식들의 삶에 관해 당소를 나누었습니다. 과연 이 텐트를 지키는 것이 무엇에 쓸모가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냥 여기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 편집자주 = 편안한 언어 사용에 배~처리하였습니다.

호강하는 느낌, 왜죠
42일째, 김건태 대의원
이승환 조합원

20시 30분. 후배 조연출이 내가 좋아하는 카페라테 2잔을 가져왔다. 의리 있는 능. 밥 사줘야겠다.

21시. 치킨이 배달됐다. 이주영 선배다.

22시 30분. 시간이 지나도 배가 꺼지질 않는다.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다. 소녀상 옆 비닐 천막에서 자는 대학생들에게 주었다. 너무 고맙다며 밝게 웃는 여대생 보니 너무 호강하는 느낌이다. 우리 텐트는 건물 안에 있고 따뜻하다.

체감온도 차이 40도!
45일째, 임병식 대의원

물과 하루 전에 따뜻한 열대지방에 있다가 귀국하자마자 텐트에 앉게 됐다. 시차는 없는데 체감온도 차이가 무려 40도.

추위와 새벽 3시. 수습 시절 전통 구하러 지구대 들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엔 힘든 줄도 모르고 나름 사명감을 갖고 돌아다녔고 보람도 있었다.

한데 요즘엔 어디 가서 떳떳하게 기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기레기' 소리 들을까 입이 열리지 않는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 차례의 파업과 인사전환, 이해할 수 없는 회사 운영. 그 가운데 현 경영진이 있었다. 이제 후배들 그만 괴롭히고 하루 빨리 나가길.

30분 만에 항복
46일째, 서정호 조합원

오늘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야간 당번과 교대하 뒤 패기있게 텐트 문 열어놨으나 30분 만에 항복. 가만히 앉아 있으니 더 춥게 느껴진다.

위원장이 보내주신 치킨 잘 먹었습니다. 근무 마치고 집에 가는 부원을 붙들고 함께 나눠먹으며 텐트 당번 영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자가 함께하기를 바라며...